

“진정한 왕은 백성들이 만들어낸다”

18세 어린 광해 역 여진구

“기존 광해 모습 보이지 않으려 노력”

영화 ‘대립군’ 비통한 상황 속 지금과 닮은 조선

나라를 이끄는건 백성이라는 메시지 담고 싶어

대립군 수장 토우 역 이정재

“두려움 숨긴 대립군 모습 전달 고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18세의 어린 광해(여진구 분)에게 임시조정인 분조(分朝)를 맡기고 의주로 피란한다.

임금 대신 의병을 모아 전쟁에 맞서기 위해 강제로 향한 광해와 10여명의 신하는 당시 남의 군역을 대신하며 먹고 살았던 대립군(代立軍)을 호위병으로 끌고 간다.

대립군의 수장인 토우(이정재 분)와 동료들은 광해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공을 세워 비루한 팔자를 고치기 위해 위협을 무릅쓴다. 하지만 광해를 잡으려는 일본군의 추격에 희생이 커지면서 대립군과 광해 간 갈등이 점점 깊어 간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 ‘대립군’은 임진왜란 당시 의주로 피란한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 분조를 이끌게 된 광해와 생계를 위해 남의 군역을 대신 치렀던 대립군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나약한 광해가 이름 없는 대립군과 함께 험난한 여정을 경험하면서 백성의 삶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정윤철 감독은 22일 시사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현실과 맞닿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립군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소년을 만나 산전수전 겪으면서 소년은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가를 깨우쳐 나가고 대립군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이야기”라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립군, 백성이 결국 왕을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스토리에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는 평소와 달리 굵고 거친 저음의 목소리로 투박한 친민인 토우 역할을 소화해냈다. 특유의 카리스마에 의연한 대처능력까지 지닌 대립군 수장 역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두려움은 눈빛 연기를 통해 담아냈다.

그는 “같은 사극이지만 이전에 연기했던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과는 다른 모습”이라며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대립군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을지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광해에게 마음을 담고 있던 토우는 광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며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가 쌓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광해 역을 맡은 여진구는 “‘대립군’ 속 광해는 지금까지 영화에 등장했던 왕이나 왕세자와는 다른 면모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왕이나 왕세자의 모습이 비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며 “영화를 보고 나니 광해를 잘 표현했는지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광해는 하루아침에 조선을 짊어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부담감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허무함에 시달려요.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방향도 하고요. 그런 상처를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 믿음이 두터워지는 모습이 부러워요. 앞으로 살면서 공허함과 부담감을 느끼는 힘든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대립군’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씨스타, 7년 고비 못넘고 결국 해체

31일 발표 앨범이 팀활동 마지막... 손편지로 미안함 전해

4인조 걸그룹 씨스타(효린·보라·소유·다솜)가 31일 발표하는 싱글을 끝으로 7년만에 해체한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6월 초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씨스타는 이번 싱글을 끝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 가요 관계자는 “멤버들이 소속사와 오랜 시간 진로를 상의했다고 들었다”며 “7년간 고생하며 활동한 멤버들이 다른 도전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소속사와 멤버들이 팀 활동을 마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재계약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효린과 소유는 솔로 가수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며 예능에서 활약할 보라와 SBS ‘언니는 살아있다’에 출연 중인 다솜은 연기자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다.

씨스타의 팀 활동 종료는 다소 의외다. 특히 새 앨범을 낼 때마다 음원차트 1위를 찍는 등 좋은 성적을 내 팀 자체가 하락세를 겪고 있지도 않았다.

그로인해 가요계와 팬들의 놀라움과 아쉬움이 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 3일 ‘푸시 푸시’(Push Push)로 데뷔한 씨스타는 에너지 넘치는 댄스곡과 건강한 색시미,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랑받으며 ‘음원 파워’를 보여줬다. 특히 ‘소쿨’(So Cool)과 ‘러빙 유’(Loving U) 등 시원한 여름 곡을 히트시켜 ‘서머 커’으로 불렸다.

효린과 보라로 구성된 씨스타의 유닛(소그룹인) ‘씨스타 19’도 ‘마 보이’(Ma boy)와 ‘있다 없으니까’로 큰 사랑을 받았다.

씨스타가 23일 팬카페에 손편지를 올려 팀 활동 종료를 알리고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효린은 “씨스타의 효린으로서 멤버들과 그리고 스타1(멤버럽명)과 함께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꿈과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라며 “이제 우리 씨스타 멤버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라도 “제가 매년 팬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한 7년이 다들 즐겁고 행복했으려나 모르겠어요”라며 “저는 스타1과 씨스타 멤버들이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행복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소유는 “돌아보면 팬분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라고 썼다.

다솜도 “팬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앞으로 각자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보답해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출장 오순남) | 30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
| 9 | 30 KBS 뉴스 |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뉴스 50 중계방송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10 좋은아침 |
| 10 |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40 지구촌 뉴스 | |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 11 | |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재) | | |
| 12 | 00 KBS 뉴스 12 | |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군주)(재) |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테마스페셜 |
| 1 |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종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감성툰 고맙습니다(재) | 00 속보이신TV 인사이트(재) |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어스트 55 중계방송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55 닥터 365 |
| 2 |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 | 00 중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 3 | | 00 자동차부행상 위키 2 30 TV유지원 | | |
| 4 | | 00 여유만만(재) 55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별예선 (남아공 : 이탈리아) | 00 MBC 뉴스M | 00 뉴스브리핑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 | 00 MBC 이브닝 뉴스 | 00 2017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잠비아 : 이란) |
| 6 |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 10 생방송 빛날 | |
| 7 |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사람 | 00 2TV 생생정보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
| 8 | 2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채발굴단 |
| 9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논 | |
| 10 |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 | 00 드라마 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
| 11 |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 10 추적 60분 | 10 라디오스타 1~2부 |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
| 12 | 30 특집다큐 LA 폭동, 끝나지 않은 6일 |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 40 MBC 뉴스 24 | 30 나이트라인 |

| EBS1 | |
|--------------------------------------------------------------------------------------------------------------------------------------------------------------------------------------------------------------------------------------------------------------------------------|----------------------------------------------------------------------------------------------------------------------------------------------------------------------------------------------------------------------------------------------------------|
|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인도 푸시키라 낙타시장)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엠마 까투리(재) |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황은 생태극과 초간단 새우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체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찰) (인류 이야기의 시작, 길가메시 서사시)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잡힐때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이퍼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1~4 19:00 어벤저스: 올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나를 잊지 마오-치매병동 외> 20:50 세계테마기행 <세상의 모든 시간 타기 3부 에니틀리아 고원의 축복> 21:30 한국기행 <금강같은 내 사랑 3부 내 멋대로 산다> 21:50 EBS 다큐 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체널e 24:30 EBS 초대석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4일 (음 4월 29일辛亥)

| | | | |
|---|----------------------------------------------------------------------------------------------------------------------------------------------|---|-----------------------------------------------------------------------------------------------------------------------------------------------|
| 子 | 48년생 중차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60년생 인고의 국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72년생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릴 수 있으니 차분해야 할 것이다. 84년생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1, 79 | 午 | 42년생 파격적인 국제시나리. 54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다. 66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본에 충실함이 순조로운 것이니라. 78년생 빨리 일하면서 달려들어 가고 있는 형세이다. 90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3, 66 |
| 丑 | 49년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성국이 조성된다. 61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 성립하니라. 73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제가 된다. 85년생 일방적이라면 경직되거나 건조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5, 39 | 未 | 43년생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5년생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리라. 67년생 실효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79년생 어렵게 체제하는데 따라서 천양지가가 된다. 91년생 서서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5, 45 |
| 寅 | 50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62년생 반반이 실망시키는 원인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바람에 애를 먹겠다. 74년생 다양하게 구사해 보자. 86년생 기본 진로는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도 있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83, 13 | 申 | 44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6년생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68년생 지지 기반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80년생 의심스럽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1, 59 |
| 卯 | 51년생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게 된다. 63년생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사전에 만전을 기하라. 75년생 난해하게 형클어지는 형국이다. 87년생 신중하게 선택하라. 행운의 숫자 : 96, 70 | 酉 | 45년생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57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69년생 반복되면서 실 틈을 주지 않는다. 81년생 우선 차분하게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2, 32 |
| 辰 | 52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64년생 이미 기다이 잡고 있다. 76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일매일 필요가 없다. 88년생 전후 사정을 잘 가려가면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논의해야만 수긍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7, 36 | 戌 | 46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58년생 실개천에서만 노닐던 물고기가 큰물을 만났으니 즐겨우리라. 70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82년생 조금씩이지만 기운은 발전적이고 세차다. 행운의 숫자 : 12, 58 |
| 巳 | 53년생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도가 보인다. 65년생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옳다. 77년생 맹점이 보완되는 때 성사된다는 것을 알라. 89년생 친분과 신용도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고 냉철하게 일하라. 행운의 숫자 : 19, 12 | 亥 | 47년생 방법만 달리한다 해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59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달라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71년생 결코 가법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83년생 필연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18, 64 |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